

서예비엔날레 공모 대상작 선정 취소

조직위, 낙관부분서 '원당(阮堂)'을 '원당(院堂)'으로 잘못 표기 '오자문제' 사태 재발 않도록 공모전 관련 요강 철저히 보완키로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24일 '낙관부분 오자' 논란을 야기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공모전' 대상 선정작의 당선을 취소했다. 조직위원회는 24일 "2017년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공모전 심사위원회와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안을 논의

한 결과 대상작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기념공모전 대상 작품으로 전국의 302점 출품작 가운데 이종암(32·서울)씨의 '원당선생 시'를 선정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작품의 낙관 부분에서 대상취소 사유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이씨가 작품의 낙관부분에서 '원당

(阮堂)을 '원당(院堂)'으로 잘못 표기한 것. 조직위는 논란이 불거지자 "낙관부분에 오자가 발생한 것이 실령 단순실수라 하더라도 이는 엄밀히 말해 작가의 과오이자 심사과정의 감수 부실"이라며 당선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직위는 "공모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관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 한국 서단의 공모전의 '심사경향'인 '오·탈자 발견=무조건 탈락'이라는 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칫 심사의 불공정성, 타 공모

전과의 형평성 괴리 등 다른 여러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공모전은 대상 작가를 선정하지 않고 우수상 이하의 상에 대한 시상만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프로그램에서 '2017년도 대상작가 초대전'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자문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모전 관련 요강을 철저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 기르기”

▶ 신간도서 - 딱백 갑관 '티베트 마음수련법 로종'

“단지 눈에 보이는 고통을 겪는 중생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기른다. 전혀 어려움 없이 사는 존재는 없으므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자비심이 맹목적 감정에 빠져 무분별한 행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평등심을 유지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95쪽)

1980년부터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대학과 불교센터에서 티베트 불교를 가르쳤던 딱백 갑관(1955~2012)이 쓴 '티베트 마음수련법 로종'이 국내 번역·출간됐다.

로종의 7가지 핵심 가르침은 ▲마음수련을 위한 준비 운동(무상과 인과 등 삶의 진실 성찰하기) ▲만물의 상호 의존성(연기)에 근거, 마음의 분성 역시 공(空)함을 깨닫고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법 ▲분노와 두려움 없이 역경에 대처하는 법 ▲마음수련을 평생 유지하는 법 ▲마음수련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법 ▲마음수련 시 꼭 지켜야 하는 규범 ▲일상생활에서 마음수련 하는 법이다. 각각의 가르침에는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행법이 짧은 경우 형태로 총 59가지 포함돼 있다. 이창영 옮김, 312쪽, 답엔박스, 1만6000원. /뉴스is



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본선 진출팀 선정 악단광칠 · 이나래 · 조영덕 트리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조직위원장 김한)는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소리프론티어의 본선 진출 3개 팀이 결정됐다. 지난 21일 오후 7시 서울 플라자호텔 61레드박스에서 진행된 공개오디션 결과, '악단광칠', '이나래', '조영덕 트리오'가 본선에 진출할 최종 팀으로 선정됐다. '소리프론티어'는 매해 실력 있는 한국형 월드뮤직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마련과 지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소리축제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차 서류 및 음원 심사 판문을 통과한 7개 팀이 공개 실연 예선 무대에 올라 치열한 접전을 치렀다. 소리프론티어 실연예선 무대에 오른 7개 팀은 어느 한 장르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의 우리 음악을 선보이며 새로운 음악을 제시해 '소리프론티어'로서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조영덕 트리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7개 팀 모두가 각기 다른 성격의 음악을 열심히 준비했고 훌륭하게 선보였다"며 "이 음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소리프론티어가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심사에 참여한 김현준 재즈음악평론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소리프론티어 실연 예선 중 전반적인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하나의 공연으로서도 손색없는 경연이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음악인들의 음악에 대한 진지한 접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진정성이 돋보이는 무대였다"고 평했다. 소리프론티어 실연 예선을 통과한 세 팀은 오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소리축제의 마지막 날에 최종 경연을 치르게 된다. 이들 팀은 KB소리상, 수림문화상, 프론티어상 등 총 1,800만원의 창작지원금과 2018 프랑스 바벨메드뮤지 쇼케이스 참가, 2018 말레이시아 레인포레스트 월드뮤직 페스티벌, 2018 타이완 국립전통예술중심 공연 참가 등의 혜택을 두고 접전을 치른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행복드림한옥 작은음악회' 26일 완주 용진서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행복드림한옥 작은음악회'를 오는 26일 오후 7시 용진읍 간중리 행복드림한옥에서 갖는다. 이번 공연은 예술인 문화귀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선정된 청년작가들 중에서, 7월에 입주한 예술인들이 재능기부의 형태로 참여 한다. 작은 음악회는 그 동안 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많지 않았던 마을주민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로 다가갈 예정이다. 재능기부공연에 참여한 주인공은 해금을 전공한 김남령씨와 피아노 전공 임자연씨다. 김남령씨는 '유니파이'로 활동 중이며 제주도 해비치 페스티벌 쇼케이스 참가, 홍합밸리 개막식 및 축하공연, GIST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 청년예술인이다. 임자연씨는 kbs드라마 '안타깝게' BGM작곡, 영화 '커피메이트', 영화 '이상한 동거' 음악조감독 및 작곡자이며 10개 이상의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매하며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은 가곡 및 민요, 대중가요 등 주민들을 배려한 익숙한 음악들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이 직접공연에 참여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재)완주문화재단 이상덕 상임이사는 "우리나라 8대 명당 중 하나라는 '행복드림한옥'에서 펼쳐지는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과 주민들이 예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임자연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작 초청

'황성맹인잔치' 대목 마당창극으로 재구성 28일 거창연극학교 토성극장서 공연

(재)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이 선보이는 전주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가 제29회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작으로 초청돼 오는 28일 거창연극학교 토성극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판소리 등 전주의 우수한 전통자원을 담아내는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는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맹인잔치' 대목을 마당창극으로 재구성했다. 시대적 코드를 반영한 웃음과 해학, 풍자 등을 가미한



공연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이 공연을 초청한 거창국제연극제는 야외에서 펼쳐지

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 공연예술축제로 1989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연극제에는 총 4개국 25개 단체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주마당창극이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작으로 초청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전주의 콘텐츠를 담아낸 지역성을 대표하는 공연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과 교류하고, 나아가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경험들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더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된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는 야간상설공연으로 울려진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전주한백문화관 혼례마당에서 열리며, 전통문화체험과 잔치음식체험 등 패키지로도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www.namwon.go.kr

광한루원, 구룡계곡, 뱀사골계곡,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월매를 사랑한 놀부, 남원예촌

맛과 멋이 특별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 물소리에 몸과 마음이 시원~ 우리 가락에 어깨가 들쭉입니다

남원시